

佛 노·학연대 “4일 또 전국 시위·파업”

프랑스의 고용법 갈등 사태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기에는 커녕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고용법을 일단 서명, 공포하되 반발을 초래한 최초고용계약(CPE) 조항들을 삭제한 수정 법안을 신속히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학생·노동계·야권이 일제히 수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법안 원천 철회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노동계는 타협안 발표 직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1일에도 대통령의 제안을 비판했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학생 조직 대표들이 1일 회합을 가진 가운데 학생조직 UNEF의 브뤼노

佛 ‘노동법’ 갈등, 시라크 타협안 제시 불구 격화

노동계·학생 “원천 철회를”...야권도 시민 동참 촉구

필리아르 회장은 “젊은이들이 대통령에 모욕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성토했다. 노동계도 CPE를 먼저 철회해야 대화에 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의회가 CPE를 수정하지 말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1개 좌파 정당도 이날 아침 회동에서 저항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제1서기는 시민들에 대해 4일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CPE를 철회하기 위한 새 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타협안에 반발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밤 파리 시내 바스티유 광장에 모여 시라크의 연설을 들던 시위대 수백명은 타협안이 발표되자 ‘시라크의 사퇴’를 외쳤다. 일부 청소년들은 가두 시위를 벌이며 경찰에 병을 던지고 건물 유리창을 파손했다.

1일 아침에도 파리 시내에 2천여명이 모여 유리창을 깨고 차량을 훼손했다. 또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 사무실에 계란을 던지고 소르본 대학을 지키는 경찰을 공격했다. 경찰은 107명을 검거했다. 지방의 리옹,

낭트, 스트라스부르, 보르도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앞서 시라크 대통령은 TV와 라디오 연설에서 CPE가 포함된 고용법이 고용 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법 절차대로 서명,공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된 조항들을 삭제한 수정 법안을 즉각 채택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26세 미만 종업원의 시험 채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해고시 사유 설명 의무화 조항들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62%가 시라크 대통령의 TV 연설 내용을 납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CPE 관련 여론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진만기자 man21@

■前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1주기

특별미사·기도회...전세계 추모 물결

2일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1주기를 맞아 전 세계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가 벌어졌다.

그의 조국인 폴란드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바티칸을 찾아 기도와 찬송, 독서 행사를 가졌다. 순례자들의 물결은 선종 당일인 2일에는 절정을 이루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된 성 베드로 대성당 입장을 기다리는 행렬은 드넓은 광장 주변으로 뻗어있었다. 성당 지하에 안치된 묘소는 인파가 계속 모여드는 통에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환풍기가 설치됐고 붉은 테이프를 둘러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순례자 등 최대 50만명 바티칸으로

로마 시당국은 순례자를 포함한 최대 50만명의 인파가 모여든 것으로 추정했다. 순례자의 절반은 이탈리아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며 폴란드에서도 5천~1만명 정도가 전세 버스와 열차편으로 바티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의 선종 시각인 오후 9시 37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발코니에서 순례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묵주 기도를 선도했고 3일 오후 5시 30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다.



2일 선종 1주년을 맞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인 폴란드 크라쿠프 거리에 그려진 그의 벽화 앞에서 한 순례자 기도를 올리고 있다.

베네딕토 16세 3일 추모 미사 집전

바티칸은 물론 요한 바오로 2세의 조국인 폴란드, 멕시코시티와 마닐라, 서울 대교구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가톨릭 교회들도 요한 바오로 2세를 일제히 기렸다. 그가 생전에 주교로 봉직했던 폴란드 크라쿠프 교구의 성당과 출생지인 폴란드 남부의 바데비체에서는 각각 특별 미사와 기도회가 있었다.

생가는 그와 가족의 유골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유지, 하루 5천명의 관람객들을 계속 맞이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서는 최대의 교구인 마닐라를 물론 정진석, 조지프 켄 추기경을 새로 배출한 서울과 홍콩 교구에서는 추기경들의 집전하는 특별미사와 추모 행사가 있었다. 인도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바오로 2세 빠른 시일 내 ‘시성’ 가능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머지 않아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1주기 행사를 관장하는 마우로 파르미기아니 신부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蓋福) 절차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성(蓋聖)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르미기아니 신부는 또 “교황은 입법자로서 당연히 절차를 단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에 앞서 그의 사후에 이뤄진 기적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크라쿠프 교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라쿠프 교구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에 선임되기 전까지 시무했던 곳이다.

이란 서부지방 강진, 최소 66명 사망

이란 서부지방에서 지난달 31일 강진과 함께 서너 차례의 여진이 발생, 최소 66명이 숨지고 1천200여명이 부상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IRNA 통신은 이날 오전 1시5분(현지시간)에 진도 5의 지진이 이란 서부 로레스탄주 산업도시인 보루제르드와 도루드를 덮쳤으며 진앙지는 두 도시의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라고 전했다.

이어 10여차례의 여진이 일어난 뒤 새벽 4시47분 도루드와 인근 지역에서 진도 6.0의 지진이 이어지면서 피해규모가 확산됐다. 이 지역은 하루 전에도 진도 4.7의 지진이 일어난 곳

이라고 미 지질조사소(USGS)가 전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 상당수가 이미 마을에서 대피한 상태에서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RNA통신은 현지 대학병원 관계자 말을 인용, 특히 보루제르드 지역의 피해가 커 45명이 숨지고 900여명이 부상했고 나머지 사상자들은 도루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알리 바라니 로레스탄 재해대책위원장은 “로레스탄 지역 마을 330곳이 지진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고 사상자 규모도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연의 분노인가...유럽 때아닌 홍수



고온현상으로 인해 눈이 녹으면서 다뉴브강 유역이 범람했다. 이로 인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가 물에 잠기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물에 잠긴 부다페스트 시내 뒤로 헝가리 의회 건물이 선처럼 고립돼있다.

이라크서 미군헬기 1대 추락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서쪽 상공에서 정찰 중이던 미군 헬기 한대가 1일 오후 추락했다고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부가 밝혔다.

미군사령부측은 사고를 당한 헬기가 정찰비행 중 이날 오후 5시30분(현지시간)쯤 추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고가 기체 결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 반군의 사격에 의한 것인지와 사고 당시 탑승 인원 및 기종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미군과 반군

사이의 격전으로 18명이 사망하고, 헬기 두대가 추락한 사고 이후 2개월 여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헬기 피격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사령부측은 “승무원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사고 당시 이 헬기는 통상적인 전투 정찰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령부의 사고 발표에 앞서 자칭 ‘라시딘군’이라고 주장하는 반군 조직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이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담배 피우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

호주, 공무원에 금연 조치 모든 직장들도 뒤따를 듯

호주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에 일절 흡연이 금지된다.

호주 신문들은 1일 호주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근무시간에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면서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담배를 피우려면 점심시간에 한해 건물 밖으로

나가서 피워야한다고 말했다. 신문들은 이 같은 금연 조치가 구두와 문서로 공무원들에게 하달됐으며 면담을 통해서도 통보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직장들이 이 같은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또 정부가 관공서 건물 15m 이내 지역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3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 관광 자원부와 그 관련기관 직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원!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재

(주)태양주택개발 TEL(062) 262-0606 / 26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임/임도·임수

태양 C&S TEL: 04512-0217-0 FAX: 04512-106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중사하세요!

드림특수방수재 드림과리아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1위 합격률 1위

4월 1일 새강원 시립면

행정고시학원 361-8111